

최연의 산 이야기 <3> 북한산 2

# 문수지혜 보현행원 쉼터이 쌓였구나

남북 능선 40여 봉우리

북한산의 능선은 북에서 남으로 뻗어 있고 능선에서 갈래 친 능선들은 동쪽보다는 서쪽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는 형국이다.

북한산의 모든 능선은 삼각뿔처럼 솟아오른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국망봉)로부터 그 뻗음을 시작하는데 북쪽으로는 만경대에서 하루재 넘어 영봉을 일구고 육모정고개를 지나 우이령에서 도봉산에 안기는 우이능선, 육모정고개를 지나 552봉에서 서쪽으로 치달아 상장봉을 일구고 노고산에 안기는 능선이 상상능선이다.

서쪽으로는 백운대에서 시작하여 시자봉·염초봉·원효봉을 일구고 효자리로 내려서는 원효능선, 남쪽으로는 백운대에서 시작하여 만경대를 크게 일구고 용암봉·일출봉·월출봉·기룡봉·반룡봉·시단봉·덕장봉·복덕봉·석가봉·성덕봉·화룡봉·잠룡봉을 거의 낮이 없이 달려와 보현봉과 문수봉으로 갈라지는 능선이 뻗어 있다.

보현봉에서 남쪽으로 형제봉과 구준봉을 거쳐 백악에 이르러 경복궁을 부러놓은 형제능선, 문수봉에서 서북쪽으로 상원봉·나한봉·나월봉·증취봉·용혈봉·용출봉·미륵봉·의상봉으로 이어져 효자리로 내려서는 의상능선, 다시 문수봉에서 서남쪽으로 승가봉·비봉·향로봉(향림봉)을 일구고 수리봉을 지나 불광천으로 내려서는 비봉능선, 다시 향로봉에서 남쪽으로 탕춘대성을 따라 내려와 홍지문에서 홍제천을 건너 인왕산에 안기는 탕춘대능선 등이 북한산의 주요한 능선들이다. 동쪽으로는 산줄기 뻗음의 세력은 약하나 능선에서 정릉으로 내려서는 칼바위능선과 우이동으로 내려서는 진달래능선 등이 있다.

이러한 능선들은 산봉우리들이 이어져 형성되는데,

북한산의 봉우리 수는 기록에 전하는 봉우리만 해도 40여개 정도이다. 여기에 민간에 면면히 이어오는 봉우리 이름들을 합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만경대와 향로봉은 국망봉과 향림봉으로도 불린다. 그 연유는 신라 말 도선국사(道詵國師)가 신라의 국운이 쇠하여 새 나라를 찾기 위해 초가암자를 지어놓고 기도를 하던 중 마침내 감응이 있어 뒷 봉우리에 올라 살펴보니 송악 일대가 왕기가 서려 있어 장차 도읍이 될 명당임을 알게 되었다. 초가암자 터가 지금의 도선사이고, 올라갔던 뒷 봉우리가 지금의 만경대인데 '나라를 바라 본' 봉우리란 뜻으로 국망봉(國望峰)이라 부르게 되었고, 향로봉은 향림사 뒤에 있는 봉우리라는 뜻으로 향림봉(香林峰)이라 했다.

도선국사 기도터 도선사

산봉우리 이름에서 특이한 현상은 불교적인 이름의 봉우리가 네 개가 있는데, 모두 북한산의 산줄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봉우리들이다.

북한산의 중심인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가 부처님이라고 보면 능선이 남향하여 갈라지는 곳 왼쪽에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 오른쪽에 실천의 상징인 보현보살이 자리 잡았다. 보현보살은 복악을 일구어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을 부러놓았고, 문수보살은 북한산의 가장 긴 능선을 계속 남쪽으로 뻗치고 마침내 백악과 어깨를 겨우는 오허 백악보다 더욱 수려한 인왕(仁王)을 부러 놓았다.

그리고 남북으로 뻗은 능선과 서쪽으로 뻗은 원효능선 그리고 서북쪽으로 뻗은 의상능선 상에 북한산성을 쌓았는데 백운대에서 시작된 북한산성이 삼각봉지를 이루고 끝나는 양쪽 끝 봉우리가 의상봉과 원효봉

인데, 한국불교에 있어서 지혜의 상징은 의상이요 실천의 상징은 원효임에 틀림이 없다.

고려~조선초 26개 사찰 창건

그야말로 북한산은 불교의 지혜와 실천의 원력이 깃든 성지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평안함을 간구하며 많은 절들을 지었는데, 북한산성 안에 중흥사·태고사·용암사·보국사·보광사·부왕사·원각사·국녕사·상운사·서암사·진국사·봉성암·원효암 등 13개의 사찰이 있었다.

그 중에 중흥사와 태고사만 고려시대의 사찰이고, 나머지는 북한산성 축성 후 북한산성의 수비와 관리를 위해 창건한 절이다. 13개 사찰 대부분 폐사되고 태고사·국녕사·상운사·진국사·봉성암·원효암은 최근에 중건되었는데, 진국사는 현재의 노적사이다.

북한산성 밖에도 향림사·승가사·문수사·진관사·신월사·삼천사·정량사·적석사·도성암·장 의사·도선사·회계사·인수사 등 13개의 사찰들이 지어졌다. 고려 현종 때 거란족의 침입으로 개성 송악산에 있던 태조 왕건의 재궁(倂宮)임금의 관을 안치하였던 향림사, 고려 현종이 임금이 되기 전에 진관 조사의 보호를 받으며 승려생활을 했던 신월사, 고려 예종이 남경을 순행할 때 잠시 머물렀던 정량사, 훈연도감의 장사(倉舍)로 변한 노적봉 아래 적석사, 조선 세종의 딸인 정희공주(貞懿公主)의 원찰이었던 도성암, 신라 무열왕 때 황산벌 싸움에서 전사한 장춘랑(長春郎)과 파랑(罷郎)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웠던 장의사, 고려 선종이 승가굴에 거동하였다가 이곳도 참배하였다는 인수사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 흔들리다

비와 눈이 번갈아 내리더니 양지바른 둔덕에 푸릇한 기운이 돌았다. 둔덕 옆을 흐르는 도랑가에도 푸르거나 붉은 빛의 풀들이 솟았다.

아직은 겨울의 차가움이 내복 속으로 파고드는데 여저자고 저 여린 것들이 흙 속에서 고개를 내밀었을까? 나보다 강한 것이 저 여린 싹들을 뻗어 알면서도 주체 넘은 의문이 스치는 것은 왜인가? 아직도 나는 세상에 대해 버릇없는 강아지인가?

서둘러 집 앞 텃밭에 심어놓은 포도나무 가지치기에 들어갔다. 물이 오르기 전에 작업을 마치지 않으면 절단면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는 포도나무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이 보기 싫으니 가위를 들고 나서야 했다. 짝뚝 포도나무의 팔뚝을 자르는 일은 마음 속에선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덩굴이 자라는 대로 놔두고 열매가 달리는 만큼 따려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

작물의 입장이 되어 지금의 농사를 바라보면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현상이다. 과수원에서 팔을 자르고 꽃과 열매를 수확하고 열매에 봉지를 씌우고 불속불속 농약으로 목욕을 시킨다. 많이 열리고 크게 열리고 인간의 입맛에 맞는 열매가 달리게 변형시킨다. 작업에 편하게 키도 작게 만든다.

일반 작물들도 유전자를 조작한 씨앗을 사용하는가하면, 품을 적게 들고 수확은 많이 얻기 위해 흙을 비닐로 덮고 가지나 덩굴이나 줄기를 자르고 줄로 묶고 지지대를 세우는 등 내버려두질 않는다. 토양 살충제로 땅속 벌레를 죽이고 제초제로 풀을 죽이고 농약으로 땅 위의 벌레와 미생물들을 죽이고 총이나 밧 그물 그밖의 도구들을 사용하여 새와 산짐승을 죽인 대가로 곡식을 얻는다. 돼지나 소 닭들은 고정된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섰다 먹고 싸고 자다가 자리를 벗어나면 죽는다.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산으로 들어온 내가 작물에게 폭력을 가하여 먹을 것을 얻

천하태평한 농법도 있다고 하지만

높고도 높은 하늘의 얘기로만 들린다

고 있으니 참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작물은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고 하지만 그것도 지극히 사람의 관점이다.

작물 스스로 사람을 기다리고 반긴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경쟁상대인 풀을 제거해주고 퇴비를 주는 등 작물이 좋아할만한 일을 해주기도 하나 작물의 허락을 받고 작물이 원하는 소리를 들어서 하는 일이 아니다. 농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거짓된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는 말자며, 작물들을 위한다는 몸짓만은 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으나 농사짓는 방법까지 나도 고치지 못하고 있다. 나와 가족이 먹는 먹거리인 만큼 될 수 있으면 농약을 치지 않고 손으로 벌레를 잡아주며 농사를 짓긴 한다. (병이 들면 딸 것이 없는 고추만은 예외로 약을 쳐서 수확을 하고 있다) 갈지도 않고 김도 매지 않으며 농사를 짓는 천하태평한 농법도 있다고 하지만 높고도 높은 하늘의 얘기로만 들린다.

농사짓기가 점점 싫어진다. 인위적인 폭력과 반복적인 일의 특성이 농사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한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천직으로서의 농부는, 인위적인 요소가 지금처럼 과도하게 개입되지 않았던 농경사회 시절의 관념일 터이다.

자연스럽지도 소리적이지도 않지만 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중요성을 깎아내릴 수도 없는 농사라는 일, 사람의 숙명 중에 이만한 것도 없다. 사람은 먹어야 하고 지금의 사회구조와 인구수는 수렵과 채취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농사법을 사용한 농사는 필연이다.

인위를 멀리하고 자연을 가까이 하는 자급자족의 삶을 지향해온 지난 10여년의 삶의 형태에 대한 집착에서도 이제 벗어날 때가 된 것인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나를 놓아주어야 하는가?

전지가위를 들고 서녘 하늘을 바라보니 해 떨어진 곳에 노을이 붉다. '이놈, 아직도 누군가 내 목구멍에 먹을 것을 넣어주길 바라느냐!' 들려오는 소리가 내 가슴조차 붉게 물들인다.



북악에서 바라본 북한산, 문수봉과 보현봉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형제능선을 지나 북악으로 흘러들고, 왼쪽으로 비봉능선 탕춘대능선이 길게 하늘을 이루고 있다.

**新 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http://www.shcandle.net)

전화 031)766-0242~3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현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14-1 일본산 후리지아(향단)

13-1 일본 영원향(소바라)

13-2 일본 영원향(소바라)

2-1 야광용 피크 70 x 35cm / 2-2 밑납초 반사심경 70 x 35cm  
2-3 4방향·야광용 70 x 35cm / 2-4 봉황색 전사지 70 x 35cm

7-1 P.C 컵 밑납초 받침대 / 7-2 P.C 컵 밑납초 연소시간 약 8시간  
7-3 바퀴양초

5-1 웨딩초 육각초 70 x 45cm

15-1 액체 파라핀 18L

주문은 헌불산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 현대불교신문사

##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중요합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에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편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어놓아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니만의 청신세계 **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giban**

성불할때까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giban**

완전 선장과 인품, 진정한 나의 **giban**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의)**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cm x 세로 32cm x 높이(윗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x 세로 32cm x 높이(윗면) 6cm]